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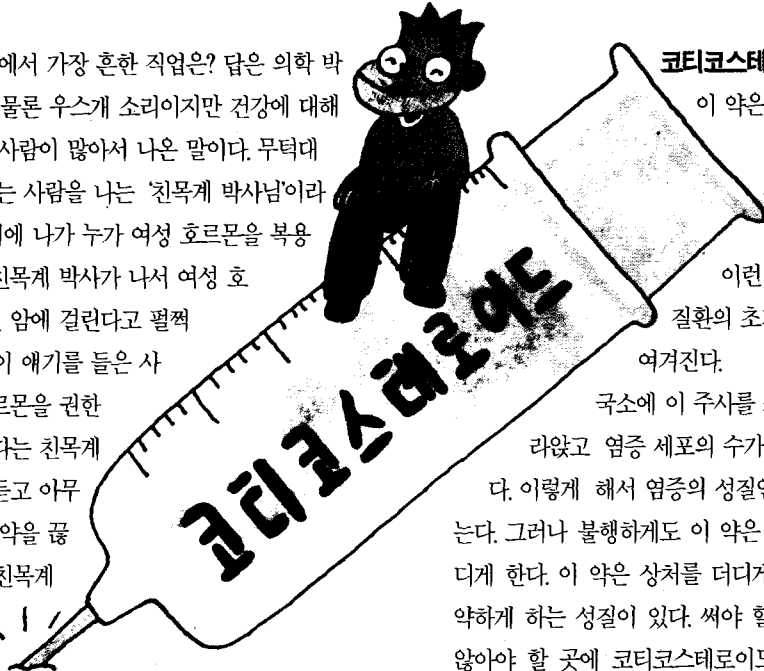


‘뼈 주사’ 알고보면 좋은 주사

우리 나라에서 가장 흔한 직업은? 답은 의학 박사이다. 물론 우스개 소리이지만 건강에 대해 아는 체 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온 말이다. 무턱대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을 나는 ‘친목계 박사님’이라 부른다. 친목계에 나가 누가 여성 호르몬을 복용한다고 하면 친목계 박사가 나서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펼쩍 뛰며 말한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여성 호르몬을 권한 의사의 말 보다는 친목계 박사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책 없이 약을 끊어버린다. 그 친목계 박사님은 어디서 그런 의학 지식을 듣고 과감한 처방을 내렸을까? 친목계 박사님은 주위에서 들었거나 신문에서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왜 무리한 결정을 내렸냐고 물으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뼈 주사는 싫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국소 주사를 사용할 때도 친목계 박사님의 고견에 시달린다. 국소 주사란 엉덩이나 팔뚝에 맞는 근육 주사와는 달리 아픈 관절이나 인대, 힘줄, 점액낭 그리고 근육에 직접 맞는 주사이다. 의사가 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주사를 환자에게 권하면 환자들은 뼈 주사는 싫다고 펼쩍 뛰는 경우가 있다. 그런 주사를 맞으면 뼈가 녹아 내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코티코스테로이드의 작용과 효과

이 약은 두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다. 코티코스테로이드는 염증의 초기 단계를 억제한다.

이런 면에서 이 약은 염증성 질환의 초기 치료에 만병 통치처럼 여겨진다.

국소에 이 주사를 쓰면 세포의 부종이 가라앉고 염증 세포의 수가 줄어 세포막이 안정된다.

이렇게 해서 염증의 성질인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약은 조직의 복구 작업을 더디게 한다. 이 약은 상처를 더디게 아물게 하고 단백질을 약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써야 할 시기를 놓치거나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코티코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면 손해 볼 수 있다. 결국 이 약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 의사만이 이 약을 명약으로 쓸 수 있고 선부른 무당이 쓰면 도리어 해를 끼칠 수 있다. 칼자루를 쥐느냐 칼날을 쥐느냐는 현명한 의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코티코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쓸 수 있는 질환

류마치스관절염 : 류마치스관절염 환자의 부어 오른 관절에 코티코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면 증상이 50% 정도 좋아진다. 이런 효과는 사람에 따라 며칠에서 몇주까지 지속된다. 관절 안에 주사를 자주 써서 관절이 파괴되었다는 보고는 거의 없다.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 : 류마치스관절염 보다 주사 효과는 떨어진다. 손가락 관절이나 무릎 관절 치료에 국소 주사를 쓴다.

통풍성관절염 : 약에 과민 반응이 있어 전신에 약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국소 주사가 효과가 있다.

건염(힘줄에 생기는 염증)이나 점액낭염 : 손가락의 쥐는 힘줄에 생기는 방아쇠 손가락이나 손목의 힘줄에 생기는 건초염인 드퀼방씨병(deQuervain's disease)에 국소 주사가 효과가 있다. 어깨 주위에 생기는 점액낭염이나 대퇴부에 생기는 점액낭염은 단 한번의 국소 주사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신경이 눌리는 병증 : 손목에서 정중신경이 눌려 손가락 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수근관 증후군도 국소 주사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으나 쉽게 증상이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국소 주사의 부적절한 사용

급성 손상 : 손상이 심한 부위에 코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코티코스테로이드는 염증을 가라앉히지만 단백질을 약하게 하고 상처를 더디게 아물게 한다. 힘줄이나 신경에 주사가 들어갈 때 : 의사의 부주의로 신경이나 힘줄에 주사가 들어가면 신경이나 힘줄이 손상될 수 있다.

감염이 있을 때 : 감염된 조직에 주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효과가 없음에도 같은 장소에 자주 주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소 주사의 부작용

전신에 나타나는 반응은 드물지만 일시적으로 당이 올라가는 수가 있으므로 당뇨병환자가 주사를 맞을 때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주사를 맞고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다. 주사를 맞은 후 간혹 전신에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국소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달이 지나면 본래의 색깔로 돌아오므로 안심해도 된다. 주사를 맞은 후 피부의 색깔이 진해지거나 피부가 아래로 꺼진 사람도 있다. 주사를 맞고 난 다음 하루

나 이들은 통증이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다.


월남전이나? 걸프전이나?

미국이 월남전에서 썼던 폭격 방법은 용단 폭격이었다. 하늘에서 폭탄을 퍼부어 대면 그 아래 정글에 있는 베트콩이나 베트콩의 군사시설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 방법을 쓰면 베트콩이나 베트콩의 아지트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간인이나 학교도 폭탄에 맞을 수 있다. 힘줄이나 점액낭에 만성 염증이 생겼을 때 전신에 약을 투여하는 것은 용단 폭격과 비슷한 방법이다. 염증이 있는 힘줄이나 점액낭 말고 우리 몸의 여러 조직이 약의 영향에 들어간다.

걸프전은 달랐다. 미군은 첨단 장비로 철저히 계산해서 꼭 파괴하고 싶은 군사 시설이나 병커를 향해 폭탄을 터트렸다. 이런 방법으로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코티코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는 걸프전의 폭탄 투하 방법과 비슷하다.

진정 한 약

20년 동안 류마치스관절염 환자 일만이천명에게 사십만 번 이상 코티코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놓은 경험이 있는 의사의 말 "이제까지 이처럼 부작용이 없으면서 관절염의 국소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는 없었다."

이처럼 좋은 주사가 우리나라에서 1백 주사로 푸대접받는 이유는 일부 의사들이 주사를 너무 함부로 사용하였거나 주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사를 놓을 적절한 증상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면 코티코스테로이드 주사는 그야말로 '매직'이 될 수 있다. 



노만택
민백정형외과 원장